

노틀담: 175년의 살아있는 역사



2025년 희년을 맞이하여 교회와 함께 이 은총의 시간을 기념하며, 우리는 노틀담 수녀회 창립 175주년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이 여정 동안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카리스마,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깊은 체험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카리스마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희망의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념의 해를 시작하기 위해 거룩한 십자가 관구의 각 공동체는 신앙과 친교를 표현하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기도와 상징적인 몸짓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 로고가 새겨진 기념일 티셔츠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치와 연결을 상징하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희망을 품고 전진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미와 감사로 마음을 높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누고, 기억하고, 기뻐했습니다! 좋으신 하느님의 좋으심을 높이는 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희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정신과 상호문화적 화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몸짓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요리 전통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믿음과 감사의 여정을 재확인합니다.

거룩한 십자가 관구, 파소 фун도, 브라질